

## 교회소식 및 광고

1. 8.1-9.15 40일 특별 새벽기도와 비전집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2. 시작되었으니 주위 자녀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10월25일 예배 후에 Green lake로 단풍놀이를 갑니다. 다 참석 바랍니다.
4. 성경통독(41주)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교우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5. 중보기도: 천춘미 집사님 수술과 온전한 치료 위해 중보기도 바랍니다.

\*\* 성가대/한글학교 문의--반주자: 박해경(240)641-3509 \*\*

\*\* 교회학교 문의--교육 담당 전도사: 이창연(240)271-5815 \*\*

## 향기로운 예물

지난 주일 헌금 봉헌 (\$2,605.00)

**십 일 조:** 김광일 천춘미, 이진원 유금자, 심선섭, 송희복 송순란,  
이창연 박해경,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조우형, 조윤경

**감사헌금:** 천춘미(주님은충), 송정례, 심선섭, 이관호, 유기명,  
이창연 박해경,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주일헌금:** 강나희, 고향숙, 박병기, 손정옥 박순주, 심선섭, 이관호,  
조병우 조은미, 조병기, 무 명.

**선교헌금:** 김광일 천춘미, 조병우 조은미, 이창연 박해경.

## 주 기도제목

1.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2. 2세대들을 위한 영어예배, 한글학교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3.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 충만함 받아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4. 천춘미 집사, 송혜숙 권사, 김영오 집사님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서.
5. 새롭게 시작하는 한글학교와 은혜로운 한 해의 결산을 위해서.

제7권 41호 | 2015년 10월 11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어린이 예배	오전 11:15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 예배	저녁 8:00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 낮 예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 다 같 이

합심기도 Prayer ..... 다 같 이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 조은미 사모

송 영 Spiritual Song ..... 다 같 이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 목사

찬 양 Anthem ..... 성 가 대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예레미야 17장 5~8절 ..... 다 같 이

설 교 Sermon .....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된 인생(2) .. 조병우 목사

폐회찬송 Closing Hymn .....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 다 같 이

♣ 헌금봉헌 Offering ..... 찬송가, 348장 (4절) ..... 다 같 이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 조병우 목사

♣ 표에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시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 수요 예배

수요 저녁 8:00

## 새벽기도회

새벽기도 6:00 (월-토)

###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담당	안내위원
이번주	조은미 사모	조병기 권사	소망속	조민연 송정예
다음주	전도사	김광일 권사	사랑속	

## 《위대한 교회 중치기의 죽음》



런던의 캔더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17세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집사가 되어 평생 동안 교회 청소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는 시간에 맞춰 교회 중탑의 종 치는 일도 했습니다.  
종을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쳤는지 런던 시민들은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서 키운 두 아들은 케임브리지와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일 그만 하세요.” 그러나 니콜라이는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해.”  
그는 76세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사랑으로 자신의 몸같이 관리했습니다.  
그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자 그는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더니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가 종을 쳤습니다.  
종을 치다가 그는 중탑 아래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감동을 받고 영국 왕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 주었으며,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심지어 유흥주점도 문을 열지 않아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 자연스럽게 런던의 공휴일이 됐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으나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는 못했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교회 종 치는 일을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한 그는 왕실묘지에 묻히는 영광과 함께,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는 명예까지 얻었습니다.